



보도시점	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		
담당부서	전략기획팀	담당자	여은정
이메일	ej_yeo@koreafilm.or.kr	연락처	02-3153-2064

보 도 자 료

익명성 뒤에 숨은 대중의 폭력성을 조명하는 화제작, <소셜포비아> 개봉 10주년 특별 상영 개최

한국영상자료원, 홍석재 감독의 <소셜포비아> 특별 상영
홍석재 감독, 이주승 배우 참여, 관객과의 대화 개최



▲ <소셜포비아> 스틸

한국영상자료원(원장 김홍준, 이하 '영상자료원')이 인터넷과 SNS 시대의 사이버 폭력과 집단 심리를 조명하는 홍석재 감독의 영화 <소셜포비아> 개봉 10주년을 맞아 특별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를 개최한다.

2015년 개봉한 <소셜포비아>는 한 군인의 자살 소식에 남긴 악플 논란과 이를 둘러싼 인터넷 방송과 커뮤니티 내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며 사이버 폭력과 군중 심리의 위험성을 섬세하게 파고든 작품이다. 저예산 독

립영화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. 이제는 충무로를 이끌어가고 있는 변요한, 이주승, 하윤경 배우의 초기 모습을 한 데 볼 수 있는 소중한 작품이기도 하다. 영상자료원 관계자는 “<소셜포비아>는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, 현대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왜곡되는 과정을 면밀히 보여주는 작품”이라며 “특히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마녀사냥, 가짜 뉴스 문제와 맞물려 더욱 강한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전했다. 상영 후에는 <소셜포비아>를 연출한 홍석재 감독, 이주승 배우, 김현민 영화기자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되어 있다.

자세한 상영일정은 영상자료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oreafilm.or.kr/cinematheque/programs/PI_01587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관람료는 무료이다.

[참고자료] 프로그램 개요

<소셜포비아> 개봉 10주년 특별상영

- 일 정: 2025.03.27.목
- 장 소: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1관
- 관람료: 무료
- 상영작: <소셜포비아>(홍석재, 2015)

[관객과의 대화]

- 일시: 3월 27일(목) 18:00 <소셜포비아> 상영 후
- 참석자: 홍석재 감독, 이주승 배우
- 진행: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